

# 광주 대표 맛집 밀키트 개발...디지털 소비 대응

### 市,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현장대화...성과·과제 공유 기업지원시스템 인공지능기술 결합 챗봇상담 서비스 개시

광주시가 지역 대표 맛집 10곳의 상품을 '전략적 광주형 브랜드 밀키트 상품'으로 개발, 소상공인 디지털 소비 트렌드 대응력을 강화한다.

또 광주기업지원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디지털 대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5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해 7월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통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통합,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이날 현장대화에는 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 강화에 앞장

서고 있는 '챗GPT' 운영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과 행정서비스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통합 재단은 지역 최초로 지원 기관과 단체가 함께 모인 '소상공인 성장 지원 정책 공유회'를 열어 소상공인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소통했다.

재단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알림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AI 기술을 활용해 광주기업지원시스템의 '알고리즘 데이터 검색'을 통한 편의성 증대로 기업하기 좋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광산구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을 방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림 챗봇 서비스는 24시간 민원 응대 서비스도 가

능하다. 또 지역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중

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난해보다 150억원 늘어난 2천600억원 규모로 확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입점, 바로요리세트(밀키트) 상품화 개발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하나 더 추가해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체계를 도입한다.

공공배달앱 추가 운영은 민간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2%)와 배달 플랫폼 간 경쟁 체계 도입으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단이 국가대표 경제 일자리 플랫폼으로서 시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경기자

## 전남개발공사, '지방소멸대응펀드' 30억 조성

### 청년층·전남 이전 기업 정착 소요자금 저금리 대출

전남개발공사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30억원 규모의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를 조성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IBK기업은행과 함께 '전남지방소멸대응펀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타 지역에서 전남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과 전남 거주 청년·신혼부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골자다.

전남개발공사 위탁금 30억원을 재원으로 청년층과 전남 이전 기업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3.09% 이자 감면)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바로 시행한다.

대상은 ▲전남 이전 중소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전남 이전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전남 거주 청년(만 19~45세 이하) 자영업자 ▲전남 거주 신혼부부(혼

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자영업자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1억원, 청년 3천만원, 신혼부부 5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자금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탁금에서 발생한 이자 1%인 3천만원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보수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전남 이전 기업과 전남 거주 청년, 신혼부부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줘 기업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는 2019년부터 20억원(전남행복동행펀드), 2022년 30억원(전남드든ESG펀드) 등 5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 공모

### 28일까지 접수...세계관광문화대전 연계 홍보 극대화

전남도는 17일 "지속가능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관광 트렌드와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발맞춰 올해 10월 열린 '2024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를 오는 28일까지 시·군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는 직접 캠핑을 즐기면서 최신 트렌드의 캠핑용품 전시·판매와 다양한 체험·볼거리를 즐기는 산업·관광형 축제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시·군 공모를 통해 행사 계획, 지리적 여건, 추진 의지 등 서면 평가를 거쳐 4월 현장 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3회 짝을 맞는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를 '2024 세계관광문화대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 광주産 공예제품,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팔린다



### 공방 '소잉' 협업 '누비 텀블러백' 출시 눈길

광주시에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 지역 공방 '소잉'이 스타벅스 코리아와 손잡고 협업 제품 '누비 텀블러백'을 선보였다. (사진)

광주시는 17일 "스타벅스 코리아와 광주지역 공방 '소잉'이 협업한 '누비 텀블러백'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 110여

곳에서 지난 14일부터 판매, 일부 매장에서 조기 품절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누비 텀블러백'은 전통 누비소재를 활용해 일상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장식 소품인 '액막이 명태 키링'에는

부터 액운을 막고 재물을 불러주는 것으로 알려진 명태를 귀엽고 다채로운 이미지로 재해석해 눈길을 끈다.

'액막이 명태 키링'은 친환경 소재인 플라텍스로 제작되고 자석고리 등을 활용해 실내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사무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스타벅스와 협업을 통해 광주지역 관광지와 명소가 담긴 '광주 예코백'을 선보인 바 있다. /박재경기자

## 광주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상담소 운영

광주시는 17일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는 전세 피해 임차인 및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등의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소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18~19일 북구청, 20~22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상담 희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부등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시민은 사전 예약하면 자택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박재경기자

## 광주 친환경

## 수목장 · 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상담문의

# 062-449-4446